



주점서 백신 접종 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한 주점에서 의료진이 시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접종 의무화 반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헨팅턴비치에서 3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팻말을 치켜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계 일주일 확진자 사상 첫 1천만명 넘었다

2일 기준 월드오미터 통계
누적 사망자는 546만명

오미크론 변이를 앞세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연 말연시에 더 가팔라졌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일까지 일주일 동안 발생한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9년 말 코로나19가 정체불명 폐렴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된 뒤 처음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주일 확진자 1,000

만명은 기존 대유행 기간에 작성된 최다 기록보다 2배 정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요국의 하루 신규확진은 역대 최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심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하루 수십만 감염...의료체계 부담 가중될라 우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일 전세계 누적 확진자는 2억9,141만 3,000여명, 누적 사망자는 546만1,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은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 감염자가 급증

해 가파른 확산세를 이끌고 있다. 미국에서 2일 하루 신규확진은 33만 7,726명으로 나타났다. 확진자가 계속 급증함에 따라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 WSJ에 따르면 미국의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입원자는 8만3,327명으로 2주 전보다 35% 증가했다. ◇유럽서도 붓물...영국 하루 신규확진 14만명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여전히 확진자가 수만 명씩 발생하고 있어 의료체계 부담을 둘러싼 근심이 커졌다.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하루 신규확진은 영국이 14만8,5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페인(9만3,192명), 이탈리아(6만1,028명), 프랑스(5만8,432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동안 방역 모범국으로 거론된 호주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입원 환자가 역대 최대로 치솟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4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는 확진자 3만 7,151명이 나와 역대 하루 최다인 전날 3만 7,212명에 육박했다. NSW주의 하루 입원자는 1,344명으로 팬데믹 이후 최다였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면역학자 모니카 간디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바이러스는

항상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며 "오미크론 변이가 너무 많은 면역을 유도해 팬데믹이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남아공 점점 지났다...확진·중증 디커플링 여부에 촉각 작년 11월 말에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보고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확산세가 꺾였다는 진단이 나왔다. 글렌다 그레이 남아공의료연구위원회 위원은 2일 미국 공영라디오 NPR 인터뷰에서 자국 4차 대유행의 정점이 지났다고 밝혔다. 남아공은 오미크론 변이의 첫 선원으로서 선례의 의미가 있는 까닭에 세계 각국

이 현지 실태나 연구결과를 주시한다. 그레이 위원장은 예전 유행과 비교할 때 이번 유행 때 입원자, 사망자가 줄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기도 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변이보다 전염력은 강하지만 중증 위험은 작다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기에 확진자와 입원자 규모의 연례성이 끊어졌다는 연구결과도 공개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남아공에서 이뤄진 한 연구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4차 대유행 때 입원한 환자가 중증환자가 될 위험은 델타 변이에 따른 3차 대유행 때보다 73%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남아공 케이프타운 대학의 면역학자 웬디 버거스는 "입원(중증)과 확진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라고 연구결과를 해설했다. /연합뉴스

“수치가 그림자” SNS 글 전 경호원에 ‘징역 3년’

미얀마 군부가 최근 문민정부 관련 인사들에게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 중인 가운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전 경호원도 경찰청에 잡혔다.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경찰 소속으로 수치 고문의 여성 경호원으로 활동했던 체리 팻(30)이 지난해 12월 30일 경찰청 위판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그녀의 변호인을 인용해 4일 보도했다. 체리 팻은 지난해 쿠데타 발발 한달여 뒤 SNS에 “우리는 당신이 그림입니다”라며 수치 고문에 대한 지지를 피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정의에 대해서도 연

급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체리 팻의 변호인은 “법원이 그녀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수감 중이던 네페도 교도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감했다”고 말했다. 체리 팻은 쿠데타 이후 군부 감시를 받아오다가 지난해 9월 말 이후로 네페도 교도소에 수감돼 왔다. 그녀는 군정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관계자들과 연락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여서 최장 3년형의 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될 수도 있다고 이라와디는 전했다.

군정은 수치 고문 측근들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수치 고문과 같은 날 가택연금된 윈 민 대통령 역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말에는 수치 고문의 핵심 측근이자 수석 보좌관인 윈 데인(80)에게 군부가 징역 20년형을 내렸다. 같은 해 7월에는 수치 고문의 보좌관이자 외교부 부장인 조 나잉 윈이 시민불복운동(CDM)에 참여해 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7년 형을 받았다. 미얀마 상황을 감시하는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의 폭력으로 인해 약 1,400명이 숨지고 1만1,300여명이 체포·구금됐다. /연합뉴스

도쿄전력, 오염수 방류 해저터널 “문제없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생기는 오염수를 해저터널을 만들어 방류하려는 도쿄전력이 터널 건설 예정지의 지반 강도 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 원전 터널 건설 예정지인 제1원전 앞바다의 400m, 700m, 1km 등 3개 지점에서 시굴 방식의 ‘보링’ (boring) 조사를 벌였다. 작업용 부유구조물에서 해저로 구멍

을 뚫어 지반 강도를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했다. 도쿄전력은 조사대상 3개 지점 전체에서 터널 건설에 필요한 수준의 강도를 확인했다며 채취한 지질 시료를 정밀 분석하고 터널의 상세설계 및 공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봄 시작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터널 건설 공사가 지역 주민들과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 속에서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오염수를 아무리 정화해도 현재 기술로는 삼중수소(트리튬)라는 방사성 물질이 남기 때문에 어민 중심인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이 해양방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터널은 폭발 사고가 났던 1-4호기 부지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5-6호기 부근에서 파기 시작해 어업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약 1km 떨어진 앞바다에 배출구를 두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